

첫사랑, 그 아련한 추억으로의 여행

나를 문학으로 이끌었던 우연한 만남

정길연 | 소설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멀어지게 되는 것일까. 눈길 한번으로 그만인 사람들, 차 한잔 식사 한끼쯤 나눴던 사람들, 다시 보지 못해도 두고두고 아름다운 사람들, 마음자리의 딱딱한 흉터가 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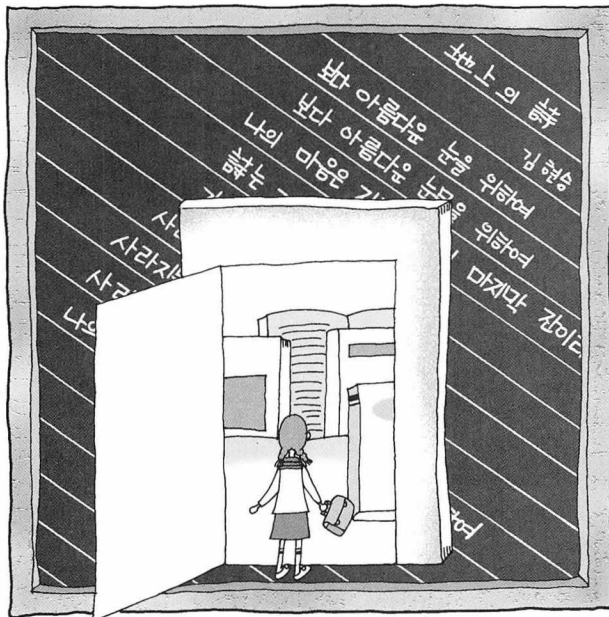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책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구입했던 교재나 실용서들, 가득이나 부족한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온갖 잡지들, 2단 세로 조판의 후줄근한 장정이 심히 못마땅한 참인데도 차마 내다버리지는 못하는 전집류들, 덮는 순간 치사하게 본전 생각이 들게 했던 함량미달 도서들, 방짜징의 여운처럼 오래고 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건만 온집안을 발칵 뒤집어봐도 어느 구석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안타까운 애서들….

책이란 떠난 애인과 달라서 얼마든지 새로 구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똑같은 제목 똑같은 표지라도 이미 감각이 다르다. 내 것이 되어서 내 감정이 실리고 그렇게 밀줄과 쪽글로 길이 든 책과, 배어버리겠다 울려대듯 날카로운 종이날로 무장한 견본양식 같은 새책들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가. 떠난 애인에 대한 상실감이 클수록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문은 더욱 굳게 닫아버린단다. 내 경우, 책 읽은 안타까움이 클수록 새로 구입하지 않는 쪽이다. 저를 아낀 날 두고 간 데 대한 앙심인가, 지조인가.

오래 전 일이다. 수첩처럼 얇고 자그마한 책이 어느날엔가부터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노란색 표지였던가. 아니면 겉장이 너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직접 덧씌운 포장지가 하필 노란색이었던가. 그 손바닥만한 작은 시집이 어쩌다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됐는지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두살 위의 작은 오빠나 네살 위의 작은 언니 중 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왔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당시 중·고생들이 많이 읽던 잡지 《학원》의 부록으로 엮여나왔다고 기억하고 있는 대목도 사실은 자신하기 어렵다. 내 기억력이 원래 좀 한심하다.

그 이전까지 내가 읽은 시라고는 동요의 가사 분위기가 나는 최계락의 동시집이나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편들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 작은 시집에는 소월이나 영랑, 만해의 잘 알려진 시들 외에도 이장희·김현승·김춘수·한하운·김수영 등 그제까지 내가 접할 수 있었던 시들과는 차원(?)이 다른 시들이 실려 있었다.

그때 나는 열넷이었고 막 중학교 2학년이 됐다. 유난히 깔꿈을 떨어대기야 했지만 달리 어떤 재능을 발휘할 기회도, 또 그럴 만하게 숨겨진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주위에 잘 드러나는 아이는 못 됐다. 나는 적당히 평범했고 시시했다. 그랬는데 그 시집을 갖고 다니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집은 허영심을 자극했고, 허영심은 수상한 우월감으로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이어졌으며, 우월감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혹은 달라져야 한다는 자기도취의 변별심을 부추기기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그 시집의 우연한 습득이야말로 내 문학사적 첫 사건인 셈이었다(길게 보면 인생사적 첫 사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선포해준 분은 국어 선생님이었다. 국어 노트 검사를 마친 다음날이었다. 노트 검사는 '수업의 이해도와 학습태도 및 과제를 점검하고 지도한다'는 명목의 비정기적인 행사로 항용 있어오던 교사의 권리행사였으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썩 유쾌한 경험일 수만은 없었다. 국어뿐 아니라 몇몇 필기양이 많은 과목은 한두달에 한번씩 학급 전체의 노트를 일괄적으로 거둬갔다가 스탬프 도장을 꼭 찍어서 돌려주곤 하던 때였다.

국어 선생님은 반 아이들의 노트를 모두 돌려준 뒤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낯선 듯한 내 얼굴을 확인하고는 도로 앉으라고 손짓했으므로 어리둥절한 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선생님이 교탁 위에 남겨 놓았던 노트를 높이 쳐들었다. 내 노트였다. 그런 다음 열심히 침을 튀기며 조목조목 짚어가는 것이었다(참고로 말하면 그 선생님, 무엇인가 강조할 때마다 목청이 커지면서 다발성 액체 파편을 분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감동적인 노트 필기라는 칭찬이었다. 사실 필기된 내용이 크게 다를 리 없었다. 기껏해야 중학교 2학년짜리의 학과 노트였다. 거기에 독창적인 논문이 정서돼 있기를 하겠는가,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관찰과 비평이 첨부됐기를 하겠는가. 비교적 단정한 글씨체와 시각적인 효과를 염두에 둔 여백 살리기에 약간의 세심함을 더한 정도였다.

어던지 비정상적으로 과장되게 추켜세워지고 있는 근거는, 그러니까 단원이 끝나는 부분마다 한편씩 베껴놓은 시였다. 앞단원이 끝나면 아무리 넓은 공백이 생겨도 곧장 뒷단원을 이어쓰지 않는 게 내 원칙이었다. 다음 장 첫줄부터 새 단원을 쓰자니 건너편 것처럼 쓸렁하게 남은 공간이 또 거슬렸다. 그래 나는 앞서 얘기한 부록편 시집의 시편들 중에서 시의 행수와 노트의 남은 공간이 비슷한 것을 골라 한편씩 인쇄하듯 또박또박 눌러쓴 글씨로 얹히고 있었던 거였다. 교과서 밖의 시라는 점, 그것도 문학적 감수성과 소양이 상당하다고 오해될 만큼 안목있는 선정이라는 점이 선생님을 감동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그렇게 그 선생님에 의해 나는 줄지에 '문학소녀'로 공표됐다.

맙소사. 난데없이 문학소녀라니. 그것은 완벽한 오해였다. 글을 쓰는 재주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거니와 관심도 없었다. 굳이 끌어다붙이자면 초등학교 때 표어짓기로 딱 한번 상을 타본 것이 그 분야의 유일한 수상 경험이었다. 교양도서를 많이 읽은 학생에게 수여되는 독서왕에 뽑힌 적도 없었고 만화책 외에는 달리 열심히 읽은 다이제스트 명작도 없는데, 엉뚱하게 나는 문학으로 품 잡는 여학생이 되고 만 것이었다. 모두가 그 한권의 얇은 부록편 시집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된 때문이었다.

이제 내가 맡을 역할은 정해졌다. 완벽한 오해를 수정할 길이 막혔다는 건 순전히 핑계고, 어쩌면 그 오해의 반대급부를 누리고 싶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제부터라도 분발할 일이었다. 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작은 언니의 국어 교과서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가을날>을 옮겨다 적거나, 작은 언니가 하던 대로 지그시 눈을 감고, "내가 리브롱 산에서 양을 칠 때의 이야기입니다..."로 시작되는 알폰스 도데의 <별> 첫대목을 줄줄 암송하는 식으로 무리하다 싶게 진도를 나갔다.

국어 선생님은 나를 교내신문반으로 끌어들었다. '인도했다'고 하는 좋은 말을 두고 굳이 '끌어들였다'고 하는 점잖지 못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다. 선생님은 내게서 엿보이는 모범생 기질을 깨부수라고 충고했으며, 성적 그만하면 공부 따위 좀 등한시해도 된다는, 전혀 교사답지 않은 사주(?)도 불사했다. 시험기간에는 일부러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시켜 시험공부를 뒤흔놓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온실 속의 화초 운운으로 그것이 오히려 문학적 삶의 치명적 결합 요인인 것처럼 야유하기도 했다. 문학 내지는 문학적 삶이 어쩌면 불온한 소굴 같은 곳으로의 침몰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어렴풋이 품으면서도 한편으로 그곳은 뜻밖의 새로운 세계였다. 목표가 있는 삶,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삶이라는 자기 암시도 지상의 양식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그때의 내 목표는 시나 소설을 창작하는 미래에 있지 않았다. 교내신문이나 교지를 편집하는 작업이 문예활동의 본령이나 다름없다고 착각해버릴 만큼 뒤죽박죽이었다. 국어와 문학을 혼동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랬으니 엉성한 문학관의 얼치기 문학소녀역에 '캐스팅'돼 웅케 그럴 듯한 흥내를 냈다고 할 밖에. 순전히 한권의 부록편 시집을 계기로.

그런데 내게 운명의 책이 되었던 그 시집이 이번에는 어떻게 내 수중에서 사라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 내 손에 들어올 때처럼 어느날 홀연히 내 손에서 사라졌다. 어디로 갔을까. 책장 너머로 넘어갔을까. 누가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았을까. 수선을 피우며 내 방, 언니방, 오빠방을 차례로 들쑤시고 다녔건만 다시 그 책을 볼 수는 없었다. 발 없는 그 시집이 저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게 내 불찰이었으려면 아무런 통보도 없이 훌쩍 떠나버린 사람 타박하듯 어떤 원망이 제법 길었다.

그랬다. 그 손바닥 시집은 내 첫번째 책이었다. 썩스러운 말로 고백하면, 내 첫사랑 책이었다.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통설은 맞는 말이다. 아무려나, 위안이 돼주는 말이다. 특별한 의미에서 내게 첫번째 책, 내 첫사랑 책이었던 그 시집은 희미한 기억 속에서 서나 가끔씩 들춰질 뿐이다. 사라라 사라라 들추면 매콤한 먼지 냄새가 훅 끼치는 것 같다.●